



# 감염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필요

이미영 간호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청년실업, 명예퇴직, 노인취업문제 등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특히 건강한 에이즈감염인들의 경우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 특성상 노동의 기회는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감염인이 된다는 것은 종종 기존에 누렸던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직장은 물론, 심지어는 가족과도 단절된 채 사회적 신생아로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전문가들과 법률들은 에이즈는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사회적 도움에 기대하지 말고 감염인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에이즈감염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족과 분리되는 것까지, 어떠한 차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던 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나 막상 감염인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우리의 지식과 법과 이성을 거슬러 다른 말을 한다.

내가 감염인 가족들과 함께 해 온 2년 남짓의 세월 동안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질병에 버금가는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건강한 유효노동력이 풍부한 요즘 감염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출입이 잦아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신분이 불안한 것이 그들의 처지이다.

특히 젊은 시절 에이즈진단을 받고 방황한 탓에 전문기술이 부족한 것도 그들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분리되는 고통이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찾을 수 없는 아픔이었고, 그로 인해 가중되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좌절이었다.

제작년 여름 감염인이미 드러나 직장에서 해고되어 돌아온 한 가족은 눈물마저 글썽이며 자신은 비록 해고되었으나 '우리 사장님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하였다. 상황인즉 사장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날짜를 모두 따져서 일당을 계산하여 주고 기도까지 해주며 열심히 살아가라며 격려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왜 감염인인 것을 속였냐며 그냥 내쳐도 마땅했을 터인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내 가족의 순진함 때문에 기뻛고, 기도까지 해주며 격려하지 말고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감싸안고 더불어 살 일이지... 그 착한 사장님께 화가 났고, 이런 정도의 피해는 오히려 온정이라고 느낄 만큼 어두운 아딕 감염인들의 현실에 비애를 느껴야 했다.

### 감염인 구직난은 전문지식 부족과 약한 건강이 한몫

감염인의 취업이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유효노동력이 많은 상황에서 순간 뻗치면 구직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용주인들이 가능하다면 보다 더 건강한 인력을 원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취업 중인 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혹은 기회질환 등으로 병원 출입이 잦고 이로 인해 직장에서 곤란을 겪는다고 호소해 오곤 한다. 혹은 닥치는 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것이 해고로 연결될까 저어하여 항바이러스제의 복용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건강을 상해 돌아오기도 한다.

취업의 다른 걸림들은 감염인의 상당수가 사회화 및 전문교육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창 공부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갈 젊은 나이에 에이즈의 진단은 죽음의 명제와 함께 꿈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특히 초창기의 감염인일수록 직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약점들로 감염인에게 비교적 선택이 용이한 일은 일용직 막노동이거나 유흥업소의 서비스직 정도인데 이런 직업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체력의 손실이 많아 쉽게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늘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인에게는 장기적인 설계가 될 수 없다.

### 수명인장이 질적인 삶으로 연결돼야

감염인의 일을 논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이러스의 중추신경계 침범 및 약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신체적 허약이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많은 감염인에게서 결정적인 장애 외에 나리 저림으로 인한 어려움과 하체의 허약이나 보행장애 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적인 돌봄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듯 감염인의 건강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직립, 보행이 어려운 경우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하는 배려가 제공된다면 감염인의 자립은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항바이러스제의 계속되는 개발의 성과로 에이즈는 죽음의 질병이 아니라 만성질환화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야 할 것은 감염인의 생의 관리이다. 어렵게 이룬 생명의 연장이 단지 지나가는 시간들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인 삶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직업과 사회화의 배려는 무엇보다 우선될 일이며 중요한 일이다. 감염인의 수적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